기 고

이 경 주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순경

# 즐거운 행락철,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행락철이라는 말을 말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행락+철이라는 뜻으로 '행락'은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냄을 뜻합니다.

따라서 행락철이란 재미있게 노는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가을이 한 발자국 앞에 다가온 이 시점, 좋은 날씨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월 1천명 안팎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10월은 그에 비해 20%가 증가한 1,233명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117명) 중 25명(21.4%)이 10월에 발생한 것으로 수학여행과 단풍관광 등 단체이동이 많은 이 시기에 전세버스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사고 역시, 10월(5563건), 11월(5825건)으로 가을 행락철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뤄가면서 행락차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등 주변경관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위험이 커질 수 있고, 친목단체 또는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시에는 순간의 방심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와 술에 취해, 오늘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잡은 운전대는 여러분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눈물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락철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열 운행 및 차내 음주가무, 전좌석 안전띠 단속, 관광지 등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단속, 학교·산학회 등의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음주 점검·교통안전교육 요청시 적극 협조,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을 즐기는 여러분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 및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행 일정에 쫓기는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음주운전을 절대 금지하고,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금지 등 철저하게 교통법규 준수해야합니다.

천고마비(天高馬肥), 말들이 살이 찔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계절, 유난히 맑고 푸른 하늘을 가진 계절인 가을에는 그 동안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온 짐들과 몸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리고 훌훌 떠나 전국의 맛집투어를 하고 산과, 바다와 한 몸이 되고 싶은 분들, 자연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이 아닐까요?

社 說

# 전남대병원 부정채용 밝혀야

부정채용 의혹이 전남대병원을 강타했다. 결국에는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부정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과 관련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검찰로부터 서류를 인계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교육부와 전남대병원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내용이 교육부의 감사로 인해 불거진 만큼 교육부에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고, 고발장 등에 접수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와는 별개로 전남대병원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측의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병원측이 감봉(1명)과 경고(11명) 등의 징계를 내린 12명이다.

이번 수사는 노조가 채용 부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데서 비롯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는 등 '불법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나 병원측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아빠찬스, 삼촌찬스로 지역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준 병원 관계자에게 이같이 경미한 징계로 끝냈다니 병원측의 이런 안일한 자세가 비리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병원장은 의사활동도 해야 하지만 관리도 해야 한다"며 "제대로 관리를 한 것인지, 사후보고만 받으면 사전에 일어난 일은 다 무마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녀 눈높이에 맞는 가정환경 조성해야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 어린 어린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충동, 탐험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를 둘러싼 주변이 늘 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자녀들을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욕실에서는 미끄럼에 주의하고 위험물질은 아이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자. 욕실바닥에는 고무매트나 안전발판같은 미끄럼방지 도구를 깔고 비누조각이나 샴푸 등은 사용 후 즉시 마개를 닫고 비누통에 넣어서, 밟거나 거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슬리퍼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선택하도록 하자.

또한, 세제, 면도날 등 날카로운 물질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창문을 통한 추락과 블라인더 줄에 의한 질식사고에 주의하자.

아이들이 바깥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몸의 상체를 지나치게 바깥으로 내밀어 창문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침대나 가구를 창문 가까이에 배치하지 않고, 문이나 창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어린아이가 함부로 창문을 열 수 없게 하다. 또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창문 블라인더 줄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줄이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주방에서는 화상과 날카로운 물질에 주의하자. 칼이나 포크, 가위, 채칼, 열려 있는 깡통 등 날카로운 물건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위험한 물건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만지지 않도록 하며, 튀김 등 음식물을 요리할 때는 아이들의 접근을 막아 화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아이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아이들은 문틈이나 창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대개 이런 사고들은 골절이나 손톱이 빠지는 등 많은 시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사고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사소한 부주의만으로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수칙 준수 및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가정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소중한 우리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강명원 / 고흥소방서 대응조사팀장

## 생활정보전화

|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 1399 |

## 긴급전화

| | |
|---|---|
| ▲기상예보 | 131 |
| ▲법률구조상담 |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 121 |
| ▲전기고장 신고 | 123 |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 집 인·편 집 국 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